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장현	학번	
이메일	chywell@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MU GLP 과정	(국가) 미국
기 간	2020.1.1 - 12.16	[귀국일: 2020년 12월17]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0년 12 월 일

신 청 인 : 장현 (인)

미주리주 콜롬비아시는 미국 대륙 중부에 있는 도시이다.

소박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다. 콜롬비아에는 미주리대학이 유명하다.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비학위 과정은 MU International center내 AAC(Asian Affair Center)에서 주관하는데 봄학기(Session 1,2), 가을학기(Session 1,2)로 진행되며 주4회 오전시간을 이용해 수업이 이루어진다. 교과목은 미국의 문화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예술영역에 대한 강의도 이루어진다. 다만, 3월말부터 코로나로 인해 Zoom을 통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어 아쉬운 면이 있었다.

미주리 대학은 특히 레크레이션센터(체육관) 시설이 훌륭한데 헬스 및 요가 런닝 농구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수영장이 상당히 훌륭해서 공식경기가 자주 열리곤 한다. 그리고 수영장 옆에 Gratto라는 시설이 있어 사우나 또는 Hot-Tub을 즐길수 있는데 코로나로 4월이후에는 이용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웠다.

우리 가족은 아파트에 거주했었다. 주변에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 편리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쓰레기는 분리 수거가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관리실은 아파트 주변 환경도 언제나 깔끔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놓는다.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두 번씩 잔디를 깎아야 한다. 집 안에 문제라도 생기면 약속을 정해서 방문하고 해결해 준다. 관리실은 거주자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 관리실은 미국의 기념일에 맞춰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푸드 트럭은 가끔 아파트에 들어 온다. 가끔 작은 음악회를 병행하기도 했다. 행운권 추첨은 덤이었다. 일상의 작은 이벤트가 행복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미주리주는 대륙의 한 가운데 있어서 바다를 보기 어렵다. 그러나 바다 같이 넓은 강이나 호수가 주변에 많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보트나 카누 카약이 있다. 날이 따뜻하면 언제나 즐길 수 있다. 주변에 몇 가정은 저렴한 것을 구입해서 수상 스포츠의 즐거움을 맘껏 누렸다. 또한 공원 모든 곳에는 자전거 길이 있어서 자연 속에서 하이킹을 할 수 있다.

트레킹 코스도 다양하므로 가족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고 즐길 수 있다.

만약 수상 레저를 즐기고 싶다면 이른 봄에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이다. 자전거를 좋아하고 잘 탄다면 빠른 시간에 구입해서 더 많은 곳을 다니기를 추천한다. 1년이란 시간은 정말 금방 지나가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경우 미주리 대학 아시안 센터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처음 정착하는 사람들에게겐 유익한 정보도 알려주고 영어에 대한 이해와 연습도 시켜줘서 유익했다. 물론 코로나로 2달 정도 밖엔 못했지만 내년 이 곳의 상황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으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참여하시길 권한다. 아내도 즐겁게 참여했고 지속되지 못해서 아쉬워 했다. 2학기엔 커리어 센터에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을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봄과 가을에 시작하는 과정이므로 바쁘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봄 학기부터 듣기를 권한다. 시작 전 간단한 영어 레벨 체크를 위한 테스트가 있다. 물론 부담 없이 도전하면 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정으로 미국에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원어민과 대화는 기본이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육류가 싸고 과일, 유제품 가격도 싸다. 반면 해산물의 종류는 적고 비싼 편이다. 마트가 많고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다르다. 물건의 가격이 바로 표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단위 무게당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장을 볼 때 주의해야 한다. 모든 제품에는 별도의 세금이 붙어서 계산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장을 보고 나면 총금액은 더 많아진다. 물론 식당에선 세금과 팁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일상이다.

혹시 취미로 골프를 치거나 관심이 있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연간 회원권의 가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이다. 연간 회원권으로 콜럼비아 시에서 운영하는 2곳의 골프장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아쉽게도 콜럼비아시는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골프는 거의 유일하게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된다.

만약 골프를 치지 않는다면 악기나 다른 운동, 그림 등 여유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길고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다. 내년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미주리대학 내에 있는 레크리에이션 센터나 아크에서 미국인 들과 운동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방학 중 여행 계획도 온 가족이 한국에서 함께 계획해보고 필요한 준비물도 각자 분담해서 챙겨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책임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일정을 정할 때도 아이들이 참여하게 해서 여행의 주체가 되도록 인식 시켜주면 더 적극적으로 여행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책임감도 갖게된다.

콜롬비아시에 있는 AAA 보험회사에서 미국 지도를 받아서 여행 갈 곳이나 갔던 곳을 표시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미주리주 지도도 구할 수 있다면 같이 두고 활용해보시기를 권한다.

방학을 이용하여 장기 가족여행을 많이 다녀오는데 미국은 면적이 너무나 넓어 한국처럼 이동통신망이 잘 연결되지 않아 만에 하나라도 차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입국전 또는 입국초기에 유트브 등을 활용하여 타이어 교체 정도는 미리 체득해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운전면허는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을 봐야 하는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교통경찰관이

동승하여 법규 준수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판단 능력 등을 위주로 채점을 해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조금은 까다롭기는 해고 성인 가족이 있다면 가급적 많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장거리 운행시 교대로 운전을 하면 아주 좋을 것이다.

이전에 낯선 나라에 와서 지내본 경험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만약 이번이 처음이라면 가족에 대해 조금씩 더 배려해 주려고 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모든 것이 한국과 다른 미국에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귀국하시기를 기원합니다.



